

# 또 속적 야마구치에 막혀...안세영 아쉬운 준우승

### 일본 오픈 배드민턴선수권 결승전에서 0-2로 완패 정나은·김혜정 복식 우승...한국 복식 1~3위 싹쓸이

한국 배드민턴의 일본 오픈 여자복식 2연패 주인공은 정나은(22)-김혜정(24)이었다. 개인전에서 일본 오픈 첫 우승에 도전해 기대를 모았던 광주 출신 안세영(20)은 또다시 속적 야마구치에 패했다.

정나은-김혜정은 4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2 일본 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대표팀 동료 백하나(22)-이유림(22)을 서2-0(23-21 28-26)으로 꺾고 우승했다. 금메달을 획득한 정나은-김혜정은 2019년 대회서 우승한 김소영(30)-공희용(26)에 이어 한국의 대회 2연패를 이룬 선수가 됐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태 탓에 2020년과 2021년을 거르고 3년 만에 개최됐다. 지난 3월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 오픈에서 '깜짝 동메달'로 주목을 받았던 정나은-김혜정은 4월 코리아 오픈에 이어 이번 일본 오픈까지 우승하면서 세계 여자복식의 새로운 강자로 등극했다.

경기 결과는 2-0이었지만, 경기 내용은 그야말로 피 말리는 접전이었다. 사상 첫 맞대결을 펼친 정나은-김혜정과 백하나-이유림은 1세트부터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박빙 승부를 펼쳤다.

17-17에서 정나은-김혜정이 3연속 득점으로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지만, 백하나-이유림이 4연속 득점으로 순식간에 21-20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하지만 정나은-김혜정은 침착하게 3연속 득점으로 맞받아치며 먼저 세트를 따냈다.

2세트는 이번 대회 최고 명승부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경기였다. 두 팀은 18-18에서 1점씩을 주고받는 점수 공방전을 벌였다.

24-25에서 백하나-이유림이 2점을 연속으로 따내 26-25로 승부를 뒤집어 승부를 3세트로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정나은-김혜정은 강공 위주의 전략으로 백하나-이유림을 몰아붙이며 3연속 득점을 내 거르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정나은-김혜정의 우승으로 마무리된 이번 일본 오픈 여자복식에서 한국은 금메달과 은메달(백하나-이유림), 동메달(김소영-공희용)을 모두 차지했다.

여자단식 안세영은 속적 야마구치 아카네(25-일본)에 0-2(9-21, 15-21)로 패해 일본 오픈 첫 우승꿈이 좌절됐다.

안세영은 지난주 세계개인선수권 준결승전에 이어 야마구치에 2연패를 당했다. /연합뉴스



일본 오픈 배드민턴선수권에서 속적 야마구치에 패해 준우승한 안세영. /연합뉴스

## 문체부 지정스포츠클럽 공모, 광주 7개 선정 '전국 최다'

### 3년 동안 각종 사업 국비 지원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등 기대

광주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서 7개 공공스포츠클럽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선정 클럽은 ▲동구스포츠클럽 ▲서구스포츠클럽 ▲광주거점스포츠클럽 ▲송원스포츠클럽 ▲빛고을스포츠클럽 ▲동강공공스포츠클럽 ▲광산남부스포츠클럽 등 7곳이다.

이들 스포츠클럽은 3년 동안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수의계약할 수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목적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클럽이 선정된 도시가 됐다. 지역별 선정 갯수는 경기 5개, 부산·대구·경북 4개, 서울·인천·강원 3개 등이었다.

이번 지정스포츠클럽은 '체육시설 및 인적자원 확보', '수준별, 연령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등의 평가지표를 통해 서면평가, 사업계획 평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이상동 체육회장은 "이번 공모에는 전국의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등록된 사설 스포츠클럽까지 신청 가능해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각 클럽에서 잘 준비해 성과를 거뒀다"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피겨 기대주 권민솔, 국제무대 데뷔전 은메달

### 주니어그랑프리 2차 대회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권민솔(목동중)이 국제무대 데뷔전에서 침착한 연기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권민솔은 3일(한국시간)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2022-2023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7.72점, 예술점수(PCS) 58.92점, 총점 126.64점을 받았다.

그는 쇼트프로그램 62.73점을 합해 최종 총점 189.37점으로 일본 시마다 마오(212.65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권민솔의 입상으로 한국은 1차 대회(아이스댄스 임하나-취안에 금메달, 남자 싱글 차영현 은메달, 여자 싱글 김유재 동메달)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2009년생 권민솔은 어린 나이에도 자신감 있는 퍼포먼스로 무대를 사로잡았다. 뮤지컬 캣츠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권민솔은 첫 번째 과제인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깨끗하게 성공하며 기본 점수 9.50점과 수행점수(GOE) 1.21점을 모두 챙겼다.

그는 빠른 스케이팅으로 힘을 모은 뒤 트리플 루프와 트리플 플립, 더블 악셀을 클린 처리하며 순조롭게 연기를 이어갔다.

전반부 마지막 과제인 플라이 체인지풋 콤비네이션 스피ンは 레벨 3을 받았다.

그는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의 첫 점프 과제,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는 완벽하게 수행했지만,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선 어텐션(에지 사용 주의) 판정을 받아 GOE 0.17점이 깎였다.

그러나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살코는 완벽하게 해냈다.

코레오 시퀀스(레벨1), 플라이 카멜스핀(레벨 4)으로 연기의 완성도를 높인 권민솔은 체인지풋 콤비네이션 스피ンを 레벨 4로 처리한 뒤 주먹을 불끈 쥐며 밝게 웃었다.

함께 출전한 한희수(선일여중)는 최종 총점 170.00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권민솔

## 37년 테니스 여정 마치는 윌리엄스 "모든 분께 감사...새로운 버전 준비"

테니스의 '살아 있는 전설' 세리나 윌리엄스(41·미국)가 37년 테니스 여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단식 세계 랭킹 605위 윌리엄스는 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3라운드 아이들 토리아노비치(46위·호주)와 경기에서 3시간이 넘는 대접전 끝에 1-2(5-7 7-6(7-4) 1-6)로 졌다.

지난달 미국 패션 잡지 보그와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일에서 떠나야 하는 것은 힘들지만 나는 앞으로 몇 주간 이 일들을 즐기겠다"고 밝혀 은퇴를 시사했던 윌리엄스는 이날 경기를 마지막으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다.

그는 이날 경기에서 패한 뒤 인터뷰에서도 다시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럴 것 같지 않다"면서 "하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여운을 남겨줬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는 "나는 정말로 호수를 사랑한다"고 농담하며 2023년 1월 첫 메이저 대회가 열리는 호주오픈에 대한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하지만 윌리엄스가 올해 US오픈을 마지막으로 은퇴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윌리엄스는 "내 생애 가장 놀라운 경험과 여정이었다"고 올해 US오픈을 돌아보며 "살면서 한 번이라도 저를 응원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코트 위 인터뷰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한 그는 "선수로 뛰면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였다"고 자신의 강인한 모습을 자랑스러워했다.

윌리엄스는 이날 마지막 3세트 게임스코어 1-5로 뒤진 상황에서 토리아노비치에게 매치포인트를 5번이나 내주고도 계속 반격하는 끈기를 발휘했다.

4살 때 아버지 리처드의 권유로 한 살 많은 언



US오픈 테니스 3회전에서 탈락한 윌리엄스가 팬들에게 하트를 그려주고 있다. /연합뉴스

니 비너스와 함께 테니스를 시작한 윌리엄스는 이날 26일에 만 41세가 된다.

그러나 이를 전 2회전에서 세계 랭킹 2위 아넛 콘타베타이트(에스토니아)를 꺾었고, 이날도 서브 에이스 11-3, 서브 최고 시속 188km를 기록하는 등 젊은 선수들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였다.

23년 전인 1999년 US오픈에서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단식 정상에 오른 윌리엄스는 2017년에 낳은 딸 올림피아가 벌써 5살인 엄마 선수다.

그는 "물론 아직 선수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 한다"며 "하지만 새로운 버전의 세리나, 엄마가 되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은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윌리엄스가 올림피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며, 둘째도 낳을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육사오(6/45)
2관	헌트
3관	육사오(6/45)
4관	육사오(6/45)
5관	헌트
6관	육사오(6/45)
9관	한산: 용의 출현
7관 씨네캐플	탑건: 매버릭, 불릿 트레인, 미니언즈2, 비상선언, DC 리그 오브 슈퍼-팻
8관 씨네캐플	리미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1회 정기연주회  
**환경음악회 - 초록빛생기**

일시 : 2022. 9. 15.(목) 19:30  
장소 : 빛고을 시민 문화관  
문의 : 062-415-5403

광주시립국단 제19회 정기공연  
**한여름 밤의 꿈**

일시/장소 : 2022. 9. 15.-17 / 9. 22.-24. (목-토)19:30  
공연장 야외무대  
2022. 9. 30.-10. 4. (금-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잔디광장  
문의 : 062-511-2759

즐거움  
**문화산책**